

건강을 지키는 것은 우리 권리입니다!!



□글 | 이재성 □그림 | 황성호



오늘 학급회의 시간의 주제는 “우리 먹을거리”라는 내용으로 진행이 되었다.

요즘 소고기 문제, GMO식품 (유전자조작식품) 등 우리 먹을 거리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논의하기에 좋은 주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은 6학년이 되어서인지 제법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많은 정보를 알고 있었다.

“안전하다고 확신되지 않는 음식을 수입하여 국민들이 소비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음식을 통해 단 한 명의 사람이라도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면, 그런 음식을 수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반장인 철민이는 약간 상기된 얼굴로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이야기 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위험하다는 보장도 없고 싸고 좋은 고기라고 하는데, 수입을 하면 국민도 좋고 나라 경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철민이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지영이가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지영이의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먹는 음식을 수학적 계산으로 따져서 이야기 한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도 인체에 해로운 음식을 들여오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규제하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현민이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현재 소고기뿐만 아니라, 유전자 변형 식품이 다량으로 들어와서 우리 아이들이 즐겨먹는 음식에 사용되는 것은 건강하게 성장해야 하는 우리 어린이의 권리를 빼앗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맨 뒤에 앉아 있던 현지가 일어나서 또박또박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아이들의 의견은 그 어느 때보다 많았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고, 급식이나 간식으로 쓰이는 음식에 관심이 많아서인지 활발한 토론이 되었다.

“오늘은 어느 때 보다 여러분들의 활발한 의견개진에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자신이 먹는 음식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청소년이 되고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해야 하는 입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가지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선생님께서 우리들의 의견에 동의를 해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른들은 우리 아이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들어주시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선생님은 늘 우리들을 지지해 주셔서 좋은 것 같아요.” 반장 철민이의 말에 아이들도 환호성을 질렀다.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이야기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쁜 먹을 거리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훌륭한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급회의는 서로에게 힘이 되는 자리로 끝맺음을 했다.